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설정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키로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간중에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시·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본회 등 모든 유관기관·단체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1월부터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I의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즉, 정부는 축사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닭, 오리, 칠면조 사육농가 5,000호를 중심으로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및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설치여부 등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 점검시 AI 특별방역대책에 관한 홍보물과, 농가에 AI 유입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AI 차단방역 SOP)을 제공하고, 점검 결과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1차 위반시 행정지도를 하지만, 2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AI가 발생하였거나 병원체가 검출되었던 14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오리 임상관찰을 중점 실시하고, 특히 씨오리 사육농가(70개소)의 산란을 저하여부 등은 매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사육농가의 AI 방역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인데 소독설비 일제점검시 소독 미실시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이 차등지급(40~80%)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AI가 의심되는 경우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100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본회에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HPAI 예방대책본부'의 활동을 가동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는 전국의 양계인 및 회원들에게 HPAI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이며, 만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특히 차단방역이 가장 기본이면서 확실한 예방책이니 만큼 본회에서는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7건의 시가 발생하여 살처분보상금 등 582억원의 방역 비용이 들어갔으며, 발생원인으로는 AI에 감염된 철새의 분변이 이와 접촉한 사람 또는 차량에 묻어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태국 등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AI는 최근에는 유럽, 아프리카로 확산되어 현재 50개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계 데이터베이스(D/B) 소식지 발행 중계 사육수수 예측 및 조절에 큰 기대

중계의 수급상황 및 생산성을 파악하여 닭고기, 계란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본회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중계데이터베이스(D/B)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중계D/B 소식지가 발행되면서 중계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식지는 4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계D/B출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 분석 정보가 담겨있으며, 10월부터 1호를 시작으로 매월 10일 기준으로 중계장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중계D/B 소식지 발행으로 금년 1월이후 기존 홈페이지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던 중계D/B 정보를 직접 배포함으로써 인터넷 미설치농가들의 자료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계D/B사업의 진행방향을 매월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중계업계의 양계산물의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처음 발행된 10월호 소식지에는 10월 육용계가가격이 120~270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였고 연말까지 육용병아리 가격이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9월 현재 육용중계는 총 6,043,209수, 준육용중계 499,206수, 산란중계 591,206수로 전달보다 각각 3.7%, 12.8%,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입력관리를 맡아 원중계 3사에서 분양하는 중계마리수와 도태실적을 주별로 파악하고 계군별로 입식에서 도태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중계장을 방문하여 사육현황 파악 및 변동자료를 입력해 오고 있다.

현재는 중계장만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화장과 백세미 등으로 확대하여 D/B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허술하게 다루어지던 백세미의 관리가 이루어져 질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부화장의 경우 사전에 부화물량을 조절하여 원천적인 수수조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계장 및 부화장 등의 협조가 더 필요한 만큼 모두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속화되는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축산업 장기적인 안정화 방안 마련 시급

지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개시 1년 2개월만에 타결된 이후 한·EU FTA 협상이 6월부터 진행되면서 지난 9월 4차협상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한·미FTA 타결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도 FTA 협상의지를 내비치는 등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이 여러 국가로 확대되면서 말 그대로 '무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0년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이제는 복잡, 다양하게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과거보다 개방에 대한 충격은 감소하는 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 FTA 협상 결과 농업분야에서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서는 아직도 협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관심사는 한·미FTA 협상결과 보다 한·EU FTA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최대의 농업국가들이 결집된 EU는 우리에게 더 이상 먼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EU는 전세계의 최대농산물 생산국이며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지역이다. FTA 체결시 EU산 농산물 주력품목인 돼지고기, 낙농품, 가금육류(닭고기), 가공농산물 등의 수입이 증대되어 국내 농업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한 예로 양계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2005년도 수입된 가금산물중 닭고기가 4,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입가격은 kg당 2,071원으로 국내산 kg당 4,825원에 비해 43% 낮은 가격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는 2003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미국, 태국, 중국의 수입선이 덴마크 등 EU국으로 옮겨가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았지만 FTA가 타결된다면 언제든지 닭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계란관련 제품도 국내 전체 수입량의 15%정도를 EU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 EU 협상에서 우리측은 닭다리, 닭가슴살 등 민감품목에 대해 협상 예외품목으로 규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보다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국보다 조건이 유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한·EU FTA는 아직 진행중이며, 더 지켜보아야 해답이 나오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예를 볼 때 축산업의 피해는 볼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간에 다양한 FTA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신선한 양계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양계**